

**환경부  
보도자료**

- ☐ '05. 9. 배포  
☐ 사진 없음  
☐ 총 쪽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온실가스감축 추진팀	안연순 과 장 박소영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7916 pinewin@me.go.kr

## 가 가 -

-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대기질 개선에 적극 협력
- ◇ 업종별·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협력적·체계적 추진

- ☐ 정부와 산업계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질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 기존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서로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앞으로의 정책 및 기업행동의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다.
- ☐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9월 30일 원주 오크벨리에서 이재용 환경부장관, 허동수 KBCSD 회장 및 협약 참여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서명식을 개최한다.

※ KBCSD 31개 회원사중 23개 기업이 자발적 협약 참여

□ 이번 협약은 우선 기업에 대하여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조사,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및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 협조
- 기술개발 투자확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감축하는 기술을 신규 공장건설 및 생산공정 개선시 반영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자율 이행방안 강구 등 자발적·비구속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홍보,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기술개발 및 산업지원 확대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이, 기업체들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환경친화기업, 수도권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 NO<sub>x</sub> 30 톤, SO<sub>x</sub> 20 톤, TSP 1.5 톤 이상 배출 사업장

<참고자료>

붙임 : 1. 자발적 협약서

2.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현황

3. 자발적 협약 서명식 개최 계획

<붙임1>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오늘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폭우 및 폭설, 가뭄, 고온화 등 이상기후 현상 및 대기오염으로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금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국내적으로도 기존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 대기환경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계 역시 지구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 보호 및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을 통하여 지구환경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공헌하고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정부와 협약사업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1. 정부와 협약사업자들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통합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정부와 협약사업자들은 업종별·공정별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배출계수 개발, 등록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율 이행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더불어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유도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신규 공장 건설 및 생산 공정 변경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감축하는 기술을 도입하며,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에 적극 노력한다.
1. 정부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협약사업자들은 관련 사업장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1. 정부는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협약사업자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여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1. 정부는 협약사업자들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산업지원 확대 등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2005. 9. 30

<붙임2>

##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순 번	회 사 명	대 표 자
1	GS칼텍스(주)	허동수
2	동양물산기업(주)	김희용
3	삼성전자(주)	이윤우
4	SK(주)	신헌철
5	한솔제지(주)	선우영석
6	롯데칠성음료(주)	이종원
7	CJ(주)	김주형
8	(주)LG화학	노기호
9	(주)포스코	강창오
10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1	유한킴벌리(주)	문국현
12	삼성석유화학(주)	허태학
13	삼성에버랜드(주)	박노빈
14	삼성전기(주)	강호문
15	삼성SDI(주)	김순택
16	삼성토탈(주)	고홍식
17	STX엔진(주)	이강식
18	영림목재(주)	이경호
19	(주)E1	구자용
20	GS건설(주)	김갑렬
21	(주)태평양	서경배
22	한국수자원공사	곽결호
23	한국셀석유(주)	김동수

<붙임3>

## 자발적 협약 서명식 개최 계획

### □ 추진 배경

- 지난 6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자발적 협약 서명식” 개최

※ KBCSD 31개 회원사중 23개 기업이 자발적 협약 참여

### □ 서명식 계획

서명식은 KBCSD 주관 “제3회 CEO 지속가능경영 아카데미” 행사 중 개최

- 일 시 : '05. 9. 30 14:30~14:40
- 장 소 : 원주 오크밸리

- 협약서 낭독(환경부 대기보전국장)

- 협약서 서명

- 서명자 : 이재용 환경부 장관, 허동수 KBCSD 회장
- 참관자 : 협약 참여 기업 CEO 23명

- 기념촬영 : 서명자 및 협약참여 기업 CEO 전원

<참고>

## 제3회 CEO 지속가능경영 아카데미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등 록	
14:00~14:30	<b>개회식</b> - 개회사 - 격려사 - 축 사	허동수 KBCSD 회장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이재용 환경부장관
14:30~14:40	<b>자발적 협약 서명식</b> - 협약서 낭독 - 협약서 서명 - 기념촬영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서명자(2명) 서명자 및 협약 참여 기업 CEO(24명)
14:40~15:40	<b>주제 발표</b> - 주요 국제 환경협약과 환경시장 -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 실천방안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일본 경단련 상무
15:40~16:00	Coffee Break	
16:00~17:15	<b>우수사례 발표(각25분)</b> - 기업의 환경경영 우수사례 - 기업의 환경경영 우수사례 - 기업의 CSR 우수사례	한국바스프 동경전력 금호아시아나그룹
17:15~18:30	종합토론	
19:00~	환경만찬	